

메이지무라(明治村) 교육자료관

U자형의 이 건물은 1888년부터 1973년까지 도요마 고등심상 소학교의 옛 교사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메이지무라 교육자료관에서는 몇몇 교실을 재현하여 사회 변화와 더불어 학교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시품에는 학교 급식의 역사, 직업 기술 교육을 위해 사용된 다양한 재봉틀 모델 등이 있습니다. 벽에 전시된 교과서 페이지 및 숙제에서는 일본의 과거 초등학생들이 제 2 차 세계대전과 그 밖의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건물은 에치고 지역(지금의 니가타현) 출신의 건축가인 야마조에 기사부로(1843~1923)의 감독하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는 스승인 목수 마쓰오 이해이와 함께 187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의 일본관 건설을 위해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유럽에 남아 서양 건축을 공부한 그는 일본에 서양식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감독관이자 완벽주의자였던 야마조에는 기와가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모든 기와의 무게를 짚 뒤 물에 담근 후 다시 계량하여 기와가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지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야마조에를 학교 지붕 위에 남겨 둔 채 사다리를 치워 버리는 일도 이따금씩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도 건물은 무사히 완성되어 지금은 서양과 일본의 디자인 요소가 잘 조화된 메이지 시대(1868~1912) 건축물의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건물은 1981년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미야기현 도메 지역의 메이지무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료관과 부지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